양촌선생(陽村先生) "주역천견록(周易淺見錄)"

▣ 이 광 호 (연세大 철학과 학과장)

진(晉) ䷢

구사(九四) 나아가는 것이 산쥐와 같으니 바르게 하나 위태로우리라[晉如鼫鼠貞厲].

오징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쥐는 낮에는 숨어 있다가 밤에 움직인다. 사(四)는 천자의 빛 가까이 있고 강(剛)으로서 유(柔)의 자리에 거하여 태양이 하늘에 떠있는 낮에는 두려워 감히 나가지 못한다. "내가 생각건대,이 설에서 '산쥐'의 상(象)을 설명한 내용은 좋다. 그러나 '두려워 감히 나가지 못한다'면 무슨 위태로움이 있겠는가? 정·주가 '탐내면서 사람을 두려워한다'고 한 설을 바꿀 수 없다. 다만 '석(鼫)'자는 서(鼠)를 의부(義部)로 석(石)을 음부(音部)로 하니 돌 사이에 구멍을 파고 있는 쥐를 가리킨다. 돌 사이에 있는 쥐는 작고 빛나는것이다. 구사가 이(離)의 아랫자리에 거하여 빛나고 작으므로 여기에서 상(象)을 취하였다. 산쥐는 암석에 오르기를 좋아하고 사람을 보면 두려워하니 높은 지위에 있으면서 탐욕스러우면서도 다른 사람을 두려워하는 상이다. 창고에 사는 쥐라면 조용히 엎드려 어두운 곳에 숨어 있으므로 높은 지위에 있는 상이 드러나지 않는다. 그 때문에 오징은 '두려워 감히 나가지 못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離)에 거하여 빛나고, 높은 지위에 있으면서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은 아마도 산쥐여야 할 듯하다.

명이(明夷) ䷣

명이(明夷)는 어렵게 하고 바르게 하는 것이 이로우리라[明夷利艱貞].

명이는 밝음이 어둠에 의해 손상되는 때이다. 이명(夷明)이라 하지 않은 것은 어둠이 밝음을 해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즉 밝은 사람이 스스로 그 밝음을 흐리게 함으로써 어려움을 피하니 어둠이 그를 해칠 방법이 없다. 비(否)에서는 '군자의 바름이 이롭지 않다'고 하였지만 명이에서'어렵게 하고 바르게 함이 이롭다'고 한 것은 비는 한 시대로써 말하고 명이는 한 몸으로써 말하여 앞뒤에서 의미를 분명히 하려는 의도 때문이다 한시대로써 말하면 막히고 밝음이 스러지는 때는 소인이 뜻을 얻어 군자를해치게 되므로 정녕 군자의 바름이 이롭지 않다. 한 몸으로써 말하면 군자가 어찌 때가 불리하다 하여 자신이 지키던 것을 바꾸어 다른 이를 따르겠는가? 어려움을 알면서도 자신의 뜻을 바꾸지 않고 더욱 바름을 굳게지킨뒤에야 소인들로부터의 재앙을 면할 수 있고, 또한 군자의 도리를 보존할수 있으므로 '어렵게 하고 바르게 함이 이롭다.

'육오(六五) 기자(箕子)의 명이(明夷)이니, 바르게 하는 것이 이로 우리라[箕子之明夷, 利貞).

이 괘는 문왕과 기자(箕子)를 상으로 한다. 문왕이 온전하게 괘의 의미를 얻었으므로 '단전'에 "안은 문명하고 밖은 유순하다"라고 하여 두 체의덕을 합하여 말하였다. 기자는 이 한 효의 의리를 얻었으므로 '단전' 에서"어렵게 하고 바르게 함이 이롭다는 것은 그 밝음을 감추는 것이다"라고 하며육오의 재질로써 언급하였다. 육오는 뭇 음의 가운데 처하고 매우 어두운 군주에 가까이 있으면서 유순하고 중도를 얻어 아래로 육이와 덕인 같고 위가 응하니, 안은 밝고 밖은 어두움으로써 어려움과 환난에 처하여 그 정도를 잃지 않는 상을 가지고 있다. 그 때문에 기자를 해당시켰다. 그러나 효에서는 '바름이 이롭다'고만 하고, '단전'에서는 '어렵게 하고 바르게 함이이롭다'고 하였다. 주공(周公)은 기자에게 고유한 덕만을 언급하고, 공자는기자가 안으로부터의 어려움을 처리한 것을 아울러 말한 것이다. '단전'에 "그 밝음이 스러진다"고 하고, '상전'에 "밝음은 사그러지지 않는다"고 하였다. '단전'은 밖으로 드러난 자취를 말하고, '상전'은 안에 함축된 덕을 말한 것이다. 비록 밖으로는 그 밝음이 스러지나 안에서는 밝음이 사그러들지 않으니 이것이 기자가 바른 이유이다.

가인(家人) ䷤

구삼(九三) 가인이 엄하게 하니 뉘우치고 위태하지만 길하리라. 부녀자가 희희덕거리면 끝내는 인색하리라[家人嗃嗃 悔厲吉. 婦子嘻嘻終吝].

정·주는 모두 '희희(嘻嘻)'를 기뻐 웃는다는 뜻이며 엄하게 하는 것[嗃嗃]의 반대로 보았다. 집안을 다스리는데 법도가 없게 되는 것은 관대하거나 방종하는 잘못 때문이니 '끝내는 인색하다. '오징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희희'는 탄식하는 소리다. 집안을 지나치게 엄하게 다스려 며느리와 아들사이에 항상 슬퍼하고 한탄하는 소리가 들린다. 이는 크게 은혜를 해치는 것이므로 끝내 인색하다. "이는 정·주의 설명과 정반대이다.

내가 생각건대, 구삼이 강(剛)으로서 강의 자리에 거하여 집안을 지나치게 강하게 다스리는 상이다. 집안을 지나치게 엄하게 다스리면 은의(恩醫)를 손상하게 되므로 후회와 어려움이 있게 된다고 경계하였다. '희희'는 또 지나치게 관대하고 방종하는 것이므로 정자(程子)는 "이 괘는 이러한 상이 없다"고 하였다. 만일 오징의 설과 같다면 '희희'역시 강이 지나친 것이 되어 이효과 딱 합치하지만, 집안을 다스리는 과정에서 생기는 근심은 늘 상 은의가 정의를 압도하는 것 때문이지 정의가 은의를 이기는 것 때문이 아니다. 그 때문에 가인 한 괘는 전체적으로 위의(威儀)를 엄정히 하고 윤리를 바르게 함을 위주로 한다. 강이 지나쳐 은의를 손상한 경우에 대해 '뉘우치고 위태하다'고 분명히 경계하였으니, 다시 '끝내 인색하리라'고 경계할 필요는 없다. 엄한 것을 거듭 경계한다면 업신여기고 태만해지기가 쉬워 윤리를 어지럽히게 될 것이다. 집안에서는 은의가 항상 정의를 압도하고 위엄은 항상 지속되기 어려우며, 관대함과 방종이 지나치기 쉽다. 만약 효상(爻象)에 따라 강함만을 경계한다면 아마도 관대하거나 방종한데 흐를 것이므로 지나치게 강하다고 경계하고 다시 지나치게 관대한 것을 경계하였다. 비록 이러한 상이 없기는 하지만 이러한 의리를 드러냈으니 그 생각이 원대하다.

〈다음호에 계속〉

論語解說(29)

논 어 해 설

▣ 權貞澤 花山府院君宗會長 成均館 典儀

제16장

공자가 말하였다. "빙자하면서도 고지식하지 않고. 무지하면서도 충후하지 않으며 단순하면서도 신실하지 않은 사람을 나는 이해 할 수 없다."

[원문]

子曰 狂而不直하며 侗而不愿하며 悾悾而不信을 吾不知之矣로다.[자왈 광이부직하며 동이불원하며 공공이불신을 오불지지의로다.]

[이해]

대개는 어떤 단점이 있으면 그것을 보충하는 장점이 있기 마련인데 전혀 그 얻지 않을 경우에 그 당사자가 일부러 자신을 그렇게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다. 고의로 그렇게 구는 사람이면 필시 교활하고 간사한 품성을 가졌을 테니 그 내심을 헤아리지 못하겠다는 것이다.

제17장

공자가 말하였다. "새로 배우는 것은 더 배우려 애쓰고 알고 있는 것은 그것을 잃어버리게 될까 두려워하라."

[원문]

子曰 學如不及이요 猶恐失之니라.[자왈 학여불급이요 유공실지니라.]

[이해]

공부하는 자세에 대한 공자의 교훈이다. 모르는 것은 배우려 애쓰고 알고 있는 것은 그것을 잊어버리게 될까 두려워하여 지속적인 탐구와 복습의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된다는 뜻이다.

제18장

공자[孔子]가 말하였다. "드높고 크다. 순[舜]과 우[禹]는 천하를 차지하고서도 그것에 관여하여 집착하지 않았다."

[원문]

子曰 巍巍乎아 舜禹之有天也에 而不與焉이여.[자왈 외외호아 순우지유천하야에 이불여언이여.]

[이해]

순[舜]은 요[堯]의 선양[禪讓]을 받아 천자가 되었는데 제위[帝位]를 자식에게 물려주지 않고 여러 인재 중에 가장 재질이 훌륭한 우[禹]에게 선양하였으며 우 또한 천자가 되었지만 거칠고 험한 음식과 의복 보잘 것 없는 궁실[宮室]을 개의치 않고 오로지 천하의 평안을 위해 전력을 기울였던 성군[聖君]들이다.

제19장

공자가 말하였다. "위대 하도다 요나라의 임됨이여! 드높고 크다. 오직 하늘만이 광대하다 하지만 요의 덕만은 거기에 비길만하다. 끝없이 넓다. 백성들은 그것을 능히 무엇이라 이름 하지 못하였다. 드높고 크다. 그가 이룩한 공적이여! 빗나도다. 그가 성립시킨 문화여!"

[원문]

子曰 大哉라 堯之爲君也여 巍巍乎라 唯天이 爲大시거늘 唯堯則之하시니 蕩蕩乎라 民無能名焉이로다 巍巍乎라 其有成功也여 煥乎라 其有文章이여. [자왈 대재라 요지위군야여 외외호라 유천이 위대시거늘 유요즉지하시니 탕탕호라 민무능명언이로다 외외호라 기유성공야여 환호라 기유문장이여.]

[이해]

요는 고대 성군의 표준으로 추앙되는 인물이다. 자기가 천하를 잘 다스려 태평하게 만들어놓은 다음 그것을 제대로 이끌어 나갈 수 있어 보이는 순에게 자신의 두 딸인 아황과 여명을 시집보내고 재위를 물려주었는데 그로부터 태동된 온갖 공적과 빗나는 문화, 예악, 법도 등속이 너무나 광대하고 찬연하다는 공자의 칭송이다.

제20장

순은 유능한 신하 다섯 사람으로 천하를 다스렸다. 무왕이 말하였다. "나는 유능한 신하 열 명이 있어 정치를 잘할 수 있다."공자가 말하였다. "인재를 구하기 어렵다더니 과연 그렇지 아니한가, 요 당 순 우]의 교체기에는 그만한 인재들로 태평성대를 이루었다고 하나 무왕의 시대에는 부인이 한사람 들어 있으니 실은 아홉 사람뿐이었다. 천하를 삼분하여 그중의 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은나라의 복종하였으니, 주나라의 덕은 그 여말로 지극한 덕이라 말할만하다."

[원문]

舜이 有臣五人而天下治니라 武王曰 予有亂臣十人이라 孔子曰 才難이 不其然乎아 唐虞之際는 於斯爲盛하나 有婦人焉이라 九人而이니라 三分天下에 有其二하시되 以服事殷이니 周之德은 其可爲之也德已矣로다. [순이 유신오인이천하치니라 무왕왈 자유란신십인이라 공자 왈 재난이 불기연호아 당우지제는 어사위성하나 유부인언이라 구인이이니라 삼분천하에 유기이하시되 이복사은이니 주지덕은 기가위지야덕이의로다.]

[이해]

순[舜]의 신하 다섯 사람은 우[禹] 직[稷] 설[楔] 구요[皐曜] 백익[伯益]을 곱고. 무왕[武王]의 신하 열 사람으로는 주공단[周公旦]·소공석[召公奭]·태공망[太公望]·필공[畢公]·영공[榮公]·태전[太殿]·굉요[閎夭]·산 의생[散宜生]·남궁괄[南宮适]·문왕후태사[文王后太似]를 들며. 당은 요임금 호[號]이고. 우[虞]는 순임금의 호[號]다. 주는 문왕 때 천하 구주중 형·량·옹·예·서·양·[荊 梁 雍 豫 徐 楊]의 여섯을 찾지 하고 있었고 나머지 삼주인 청[靑]·연[兗]·기[冀] [청·연·기]만이 은을 따를 뿐이었다. 문 왕은 그래도 폭군[暴君] 주를 천자로 받들며 덕망과 실력을 쌓았고 그 아들 무왕이 대업을 완수하여 천하의 종주국이 되었다.

〈다음호에 계속〉

특별기고 〈70회〉

항일독립운동의 선봉 애국지사 백인(百忍) 권준(權晙) 장군〈22〉

▣ 權 仁 浩 (철학박사, 대진대학교 철학과 교수, 동양철학)

그러나 적이 수(隋)의 패전을 삼가하여 결코 평양을 직공(直攻)하지 못하고 안시성(安市城)을 먼저 칠 것이니 양장군(楊將軍)은 출전하지 말고 성을 견수(堅守)하다가 적의 포위를 기달이여(기다리어) 양장군은 내(內)로부터 출격하고 추장군(鄒將軍)은 외(外)로부터 진격하면, 나는 뒤에서 당병의 후로(後路)를 습격하여 그 귀로(歸路)를 끊고 이세민을 생금(生擒;사로잡음;생포)하겠다고 말하였다.

7. 상곡(上谷)의 봉화(烽火)와 당태종의 패주

서기 645년 2월에 당태종이 낙양(洛陽) 전(前)에 이르러, 수나라 무후(武候) 장군으로 수양제를 따라 살수(薩水)전역(戰役)에 참여하였다가, 수나라가 망한 후에 당나라에 투항하고 의주(宜州) 자사(刺史)가 되었다가 지금 연로퇴직(年老退職)한 정원숙(鄭元璹, ?~646)를 불러 고구려의 사정을 물은데, 원숙이 말하기를 '요동은 길이 멀어서 보급수송(補給輸送)이 간난(艱難)할뿐 않이라(아니라) 고구려가 수성(守城)하기에 능하여 성을 공발(攻拔)하기 극난(極難)하므로 나는 이 길을 매우 위태한 길로 본다'고 말하였다.

당태종이 이 말을 듣고 불열(不悅)하여 말하되 '금일의 국력이 수나라에 비할 바 아니니 공(公)은 다만 결과만 보라'하고 떠나면서 그래도 만일을 염려하여 태자(太子)와 이정(李靖, 571~649)에게 후방의 견수(堅守;단단히 지킬 것)를 명하고 드디어 출발해서 요혼(遼渾;지금의 발조수渤錯水)에 이르니 2백리 니녕(泥濘;진창)에 인마(人馬)가 통과할 수 없는 지라, 즉시 군량대장(軍糧大將) 염입덕(閻立德, ?~656)을 명하여 목재와 돌을 운반해서 길을 보수할 때에 수나라 전몰장병들의 해골이 처처(處處)에 널어(려) 있거늘, 당태종이 제문(祭文)을 지어서 애곡(哀哭)하고 군신(群臣;여러 신하)들과 장병들을 돌아보며 '금일 중국인들의 자제들이기에 이 해골들의 자손이니 어찌 복구(復仇;원수를 갚지)하지 아니하리오' 하는 장병에 대한 격려의 말을 한 다음에 요혼을 지나서 요하를 건넌 뒤에 전사(戰事) 순리(順利)하여 요동(遼東), 마열홀(馬列忽), 백암(白岩), 개모(蓋牟), 횡악(橫岳), 은산도(銀山渡), 황성(黃城) 등지를 차례차례로 함락(陷落)하고, 다시 이적(李勣, 584~669) 등 제장(諸將)을 불러 군사회의를 열고 새로 진공(進攻)할 계획을 토론할 때에 대장 왕도종(王道宗)은 오골성(烏骨城)을 치고 곧 평양을 공격하자 하며, 이적과 장손무기(長孫無忌, ?~659)는 안시성을 치자고 주장하였다.

이어 당태종이 생각하되 '수양제가 우문술(宇文述, ?~616) 등 제장으로 30만 대군을 보내서 평양을 습격하다가 전군(全軍)이 복(覆滅)한 것에 경계하는 마음이 있어서 왕도종의 말을 듣지 않이하고 이적의 말을 써어 먼저 안시성을 진격하기로 결정하였다.

안시성은 곧 환도성(丸都城)인데 혹은 북평양성(北平壤城)이라고도 칭한다. 태조대왕이 서북(西北)을 경영하기 위하여 설치한 것으로 발기(發岐)의 난에 중국에 점령당했다가 고국양왕(故國壤王)이 이를 수복한 이래로 해륙(海陸)의 요충이라 하여 성을 견고하게 가축(加築)하고 정병(精兵)을 배치하여 성중에 항상 누(累)십만석(石)의 양식을 적치(積置)한 난공불락의 요새라 하는 유명한 성이다.

같은 해 6월에 당태종이 이적 등 제장으로 하여금 수십만 대병을 거느리고 성을 위공(圍攻;포위 공격)할 때에 당병이 성에 접근하면 성안의 병사가 이를 사살(射殺)하여 허발(虛發)하는 화살이 없는 지라 이에 당태종이 성을 긴긴(緊緊)히 포위하고 성중병사들을 아사(餓死)케 할 계획이나 실로 성중은 양세(糧勢)가 넉넉하고 당병은 비록 가져온 양식이 풍부하나 이미 출병한 지 3~4개월이 되었음으(었으므)로 부족감을 넉기(느끼)고 또한 당군이 비록 요동의 기성(幾城;몇 성)을 공점(攻占;공격하여 차지)하였으나 아무 소득이 없는 공성(空城)뿐이오.

明心寶鑑

명 심 보 감

▣ 正巖 權爀彩 (본원 종사 연구위원)

明心寶鑑 遵禮篇(준례편) 解說

● 子-曰(자-왈)君子-有勇而無禮(군자-유용이무례)면 爲亂(위란)하고 小人(소인)이 有勇而無禮(유용이무례)면 爲盜(위도)니라.

해설 : 공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군자가 용맹만 있고 예의가 없으면 세상을 어지럽게 하고, 소인이 용맹만 있고 예의가 없으면 도둑이 되느니라"고 하셨다.

● 曾子-曰(증자-왈) 朝廷(조정)엔 莫如爵(막여작)이요 鄕黨(향당)엔 莫如齒(막여치)요 輔世長民(보세장민)엔 莫如德(막여덕)이니라.

해설 : 증자가 말하기를, "조정에는 지위 높은 경륜보다 나은 것이 없고, 한 고을에는 나이가 많은 사람보다 나은 이 없으며 나라 일을 잘하고 백성을 다스리는 것에는 덕(德)보다 나은 것이 없느니라."고 하셨다.

참고 : 무례(無禮)⇒예의가 없음. 禮→예도 례(예), 勇→날랠 용, 亂→어지러울 란(난), 盜→도둑 도, 증자-曾子⇒(506~?) 춘추전국시대(春秋戰國時代) 노(魯)나라 사상가로 이름은 삼(參)이며, 공자(孔子)의 제자로 안자(顔子), 공자(孔子), 맹자(孟子)와 더불어 네 성인으로 일컬어지며, 효행이 아주 높았다. 曾→일찍 증, 廷→조정 정, 향당(鄕黨)⇒마을, 齒→이 치, 나이 치, 보세(輔世)⇒세상을 돕는 것, 輔→도울 보, 長→긴 장, 어른 장, 다스릴 장, 德→큰 덕, 莫→없을 막, 如→같을 여. 장민(長民)⇒백성을 잘 살 수 있게 다스리는 것.

● 老少長幼(노소장유)는 天分秩序(천분질서)니 不可悖理而傷道也(불가패리이상도야)이니라.

해설 : 늙은이와 젊은이, 어른과 어린이는 하늘이 정한 차례이니 자연의 바른 이치를 어기고 도(道)를 상하게 해서는 안 되느니라.

● 出門如見大賓(출문여견대빈)하고 入室如有人(입실여유인)이니라.

해설 : "문밖에 나설 때는 큰 손님을 대하는 것과 같이 하고 방으로 들어갈 때에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이 하라".

참고 : 秩→차례 질, 序→차례 서, 패리(悖理)⇒도를 상하게 하는 것, 悖→어그러질 패, 거스를 패, 傷→상할 상, 출문(出門)⇒문 밖으로 나가는 것, 대빈(大賓)⇒큰 손님, 賓→손님 빈, 여유인(如有人)⇒사람이 있는 것같이 함.

● 若要人重我(약요인중아)인대無過我重人(무과아중인)이니라.

해설 : "만약 남이 나를 중하게 여기기를 바란다면 내가 먼저 남을 중히 여겨야하느니라."

● 父不言子之德(부불언자지덕)하며, 子不談父之過(자불담부지과)니라.

해설 : "아버지는 아들의 덕을 말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아들은 아버지의 허물을말 하지 말아야 하느니라."

참고 : 若→같을 약, 要→요긴할 요, 重→무거울 중, 거듭 중, 두터울 중, 談→말씀 담.

明心寶鑑 言 語 篇(언어편) 解說

● 말-(언어-言語)이란 인간생활(人間生活)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 한 것은 말할 필요도 없거니와 만물의 영장(萬物의 靈長)이라는 증표(證票)이기도하다. 우리 속담에 "말 한 마디에 천량 빚을 갚는다."라는 말은, 말의 중요성을 의미한다. 말 한마디 잘 못하여 패가망신(敗家亡身)하고 자기 전도(前途)를 망치는 일이 비일비재(非一非再)한 요즘 모든 분야에서 특히 말을 아끼고 신중(愼重)하고 조심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 모두 실감하고 있는 터이다. 말이란 대단히 영향력(影響力)이 커서 한 개인 뿐만 아니라 그 집안이나, 이 사회 나아가서는 한 나라의 흥망성쇠(興亡盛衰)까지도 좌우하게 된다. 그런고로 올바른 언어생활(言語生活)은 보다 훌륭하고 향상(向上)된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 劉會-曰(유회-왈) 言不中理(언불중리)면 不如不言(불여불언)이니라.

해설 : 유회가 말하기를,"말이 이치에 맞지 않으면 말 하지 아니함만 못하느니라."

● 一言不中(일어부중)이면 千語無用(천언무용)이니라.

해설 : 한 마디 말이 잘 못되어 맞지 않으면 천 마디 말이 쓸 데 없게 되느니라.

● 君平이 曰 (군평이 왈)口舌者(구설자)는 禍患之門(화환지문)이요 滅身之斧也(멸신지부야)이니라.

해설 : 유회가 말하기를 "말이 이치에 맞지 않으면 말 하지 아니함만 못 하니라."고 하였다.

참고 : 劉→묘금도 유, 이길 유, 베풀 유, 會→모을 회, 平→평할 평, 중리(中理)⇒이치에 맞는 것, 不如(불여)⇒一함만 못하다. 舌→혀 설, 화환(禍患)⇒재앙과근심, 禍→재앙 화, 患→근심할 환, 재앙 환, 병들 환, 멸신(滅身)⇒몸을 망치게 함, 滅→멸할 멸, 끊을 멸, 불 꺼질 멸, 斧→도끼 부, 군평(君平)⇒전한 무제(前漢 武帝) 때 사람으로 점술가이다.

●利人之言(이인지언)은 煖如綿絮(난여면서)하고 傷人之語(상인지어)는 利如荊棘(이어형극)하야 一言半句-重値千金(일언반구-중치천금)이요 一語傷人(일어상인)에 痛如刀割(통여도할)이니라.

해설: 사람을 이롭게 하는 말은 따뜻하기가 솜과 같고, 사람을 해치는 말은 날카롭기가 가시와 같아서 한마디 하는 말의 중하기가 천금과 같고, 한마디 말이 사람을 해침은 아프기가 칼로 베 는 것과 같으니라.

참고 : 이인(利人)⇒사람을 이롭게 함, 면서(綿絮)⇒솜, 綿→솜 면, 絮→솜 서, 형극(荊棘)⇒가시, 荊→가시 형, 棘→가시나무 극, 중치천금(重値千金)⇒중하기가 천금과 같음, 値→값 치, 도할(刀割)⇒칼로 벰, 割→벨 할, 痛→아플 통

● 口是傷人斧 (구시상인부)요, 言是割舌刀 (언시할설도)니 閉口深藏舌(폐구심장설)이면 安身處處牢(안신처처뢰)니라.

해설: "입은 사람을 상하게 하는 도끼요, 말은 혀를 베는 칼이니, 입을 막고 혀를 깊이 감추면 몸이 어느 곳에 있어도 편안할 것이니라.

참고: 할설도(割舌刀)⇒혀를 자르는 칼, 심장설(深藏舌)⇒혀를 깊이 감춤, 閉→닫을 폐, 深→깊을 심, 藏→감출 장, 牢→굳을(견고)뢰 또는 로, 우리 뢰, 處→곳 처

● 逢人且說三分話(봉인차설삼분화)하되 未可全抛一片心(미가전포일편심)이니, 不怕虎生三個口(불파호생삼개구)요 只恐人情兩樣心(지공인정양양심)이니라.

해설 : 사람을 만날 때는 말을 삼분(三分)만 하되 자기가 지니고 있는 한 조각 마음을 모두 버리지 말지니 호랑이의 세 입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로지 사람의 두 마음을 두려워 할지니라.

● 酒逢知己千鍾少(주봉지기천종소)요 話不投機一句多(화불투기일구다)니라.

해설: 술은 나를 잘 아는 친구를 만나면 천 잔도 적고, 말은 뜻이 맞지 않으면 한 마디도 많으니라.

참고 : 逢→만날 봉, 抛→던질 포, 삼분화(三分話)⇒열 마디 가운데 세 마디만 하는 것, 話→말씀 화, 전포(全抛)⇒모두 던져버림, 불파호생삼개구(不怕虎生三個口)⇒호랑이에게 세 입이 있음을 두려워하지 마라. 怕→두려울 파, 個→낱 개, 樣→모양 양, 只→다만 지, 恐→두려울 공, 情→뜻 정, 鍾→ 쇠북 종, 술잔 종, 投→던질 투, 機→베틀 기. 且→또 차.